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2002.12

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서 언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서구적 개념의 여가활동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는 우리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여건 향상을 목표로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하면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5일 근무 법제화의 방향과 시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나 국내 및 해외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국민들의 여가활동 문화를 크게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와 함께 환경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의 변화의 정도와 방향이 바르게 예측하고 이를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환경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하여 주신 최진석 박사, 이병국 박사와 조강욱 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강욱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익한 자문과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국 문 요 약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회에도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IMF 이후 경제적 고통을 나누고자 제안되었던 주5일 근무제는 경제위기가 끝난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은행 및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우리국민의 여가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예측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여가활동의 변화가 다시 산업구조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져올 소위 ‘2차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지 여가시간의 확대가 가져올 국민들의 여가 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여가는 적극적인 여가형태인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역시 여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적인 여가활동과 함께 이들 광의의 여가활동 역시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 일단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파급효과가 경제분야를 넘어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교적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소비 및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조정

되는 것이 서구의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 관광 부문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향후 관광수요예측을 보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시행 첫해부터 약5년 동안 실질적 관광인구 증가의 원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수요 변화를 전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여가통행수요를 예측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통행의 환경비용, 즉 주5일 근무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교통량의 환경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여가목적 통행량을 5년 간 약 86억 인-km 가량의 추가적 통행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통행량의 증가를 정부의 미래 교통정책을 감안하고 환경비용은 5년 동안 약 1,895억 원 규모로 전망할 수 있었다.

관광인구 변화는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될 추가비용은 5년 간 약 11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비점오염의 추가적 발생 및 관광인구의 수자원소비지역의 변화는 지방의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 공급원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비용의 산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은 최근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등의 신개념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학습 등을 통한 자기계발활동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환경영향은 극히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봉사활동 등을 통한 국민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활동 중 지역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화 및 환경보존 이벤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경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국민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를 통한 환경에 대한 교육훈련의 투자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는 현재 7, 8월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국민의 휴가문화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휴가분산의 효과는 정량화가 어렵지만 환경 각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본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와 여가활동 변화는 환경문제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이후 발생하게 될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여가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가인구의 교통수단선택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저공해차량을 개발·보급하여 향후 여가활동인구의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등의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폐기물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여가인구가 대부분 도시에서 농·어촌 등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정책의 초점을 이들 지방의 기초환경시설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각종 친환경적 관광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 설정 및 지원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제와 여가활동 변화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결과도달을 위한 경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비용 변화는 환경문제보다 앞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와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 휴가집중의 분산 문제 역시 환경문제보다는 우리국민의 의식이나 문화에 더욱 밀접하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를 하나의 경제적 혹은 환경적 현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주5일 근무제의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 2 장 주5일 근무제 도입 논리와 동향	4
제 1 절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4
1. 도입 논의 경과	4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노동시간 비교	5
제 2 절 여가활용 현황	8
1. 협의(狹義)의 여가활용 행태(통계청 분류)	8
2. 광의의 여가활용	9
3. 종합	11
제 3 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외 사례	14
1. 근로시간 단축 도입 배경	14
2. 근로시간 단축 해외사례	14
가. 미국	14
나. 프랑스	15
다. 일본	17
라. 중국	17
마. 기타	19
3. 시사점	20
제 3 장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21
제 1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 패턴의 변화	21
1.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관광(여행)	23

가. 주5일 근무제 이후 국내관광수요 예측	23
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자기계발(학습)	24
3.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25
제 2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영향	27
1. 여가인구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27
가. 관광행태의 변화	27
나. 여가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발생량 변화	29
다.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	34
라.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활용 변화	36
마.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환경자원	37
2. 자기계발 및 학습에 따른 환경영향	39
3. 사회참여의 변화	40
4. 기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41
5. 종합	41
제 4 장 주5일 근무의 환경영향에 따른 정책제언	44
제 1 절 환경친화적 여가활동 유도를 위한 정책제언	44
1. 교통부분	44
2. 폐기물 부분	46
3. 수질부분	46
4. 자연환경자원 분야	47
제 2 절 결론 :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정책 방향	48
<참고문헌>	51
<부록 1> 국내관광총량예측	52
가. 분석체계 및 예측의 전제조건	52
1) 분석체계	52

2) 전제조건	53
3) 국민관광총량 변화율 전제	57
나. 국내관광총량 예측결과	58
<부록 2> 2003~2007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0
1. 여가·문화 학회	65
2.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삼성경제연구원	67
3.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 현대경제연구원 ..	68

표 차례

<표 2-1> 주요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5
<표 2-2> 주요 국가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비교	6
<표 2-3> 한국인의 주말 휴일 여가활동방법(중복응답)	9
<표 2-4> 사회단체 참여도	10
<표 2-5> 자원봉사활동 비율	10
<표 2-6>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11
<표 2-7> 10세 이상의 요일별 시간활용	11
<표 2-8>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12
<표 3-1> 최근 한달간 주말 여가활동	22
<표 3-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광수요 변화	23
<표 3-3> '주 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여행행태 비교	24
<표 3-4> 희망하는 교육분야	25
<표 3-5> '주 35시간 노동' 실시 이후의 사회활동 참여	26
<표 3-6>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26
<표 3-7> 주 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 (2002. 9.5)	27
<표 3-8> 2003년 이후 여행행태별 관광수요 (1)	28
<표 3-9> 2003년 이후 여행행태별 관광수요 (2)	28
<표 3-10> 여가활동 목적 교통량	29
<표 3-11>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 증가율 전체	30
<표 3-1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목적 교통량 증가분	30
<표 3-13> 교통수단간 환경비용 비교(프랑스 사례)	31
<표 3-14> 주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비용(1)	32
<표 3-15> 주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비용(2)	32
<표 3-16> 토요일 통근에 의한 연간 환경비용	33
<표 3-17>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가 유발한 순수 환경비용	34

<표 3-18> 국립공원 입장객 1인당 오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추이	35
<표 3-19>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오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변화	35
<표 3-20>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활용 변화	36
<표 3-21> 생태·녹색관광 현황	38
<표 3-22> 프랑스 주35 시간 노동 이후의 학습활동 증감 (응답자 : 158명) ·	39
<표 3-23> 최근 교육, 홍보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지원 현황	40
<표 3-24> 주5일 근무제의 시행 이후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42
<표 4-1> 도로이용자 비율 증가 시 추가적 환경비용	44
<표 4-2> 철도 이용자 증가 시 환경비용 절감	45
<표 부록 I-1> 주 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 (2002. 9.5)	53
<표 부록 I-2> 5년 간 순 증대효과에 대한 년도별 성장률 배분 가중치	56
<표 부록 I-3> 관광총량 관련 변수	57
<표 부록 I-4>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 증가율 전제	58
<표 부록 I-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예측	59
<표 부록 II-1> 2003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0
<표 부록 II-2> 2004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1
<표 부록 II-3> 2005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2
<표 부록 II-4> 2006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3
<표 부록 II-5> 2007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64
<표 부록 III-1> 지난 한달 간 주말 여가활동	65
<표 부록 III-2>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	66
<표 부록 III-3> 주5일 근무제 정착 이후 희망 여가활동	66
<표 부록 III-4> 소득별 소득과 여가에 대한 선호	67
<표 부록 III-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에 대한 여가활용	67
<표 부록 III-6>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무 활용 방법	69

그림 차례

<그림 부록 III-1> 주5일 근무제 찬성 이유	69
-----------------------------------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절대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의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의 빠른 보급과 확산의 영향으로 공장자동화(FA)·사무자동화(OA) 등이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므로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다. 게다가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끈임 없이 표출됨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례로 1970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6시간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46.9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스포츠·레저활동, 지식이나 교양 제고, 건강향상 등 개인적인 선호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여가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가는 주로 여가시간의 양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각종 활동은 교제와 휴양 등 개인적 휴식과 직결된 활동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들 활동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 즉 스포츠·레저활동과 행락·산책을 위한 시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활용의 변화는 여가시간을 피상적으로 보내기보다는 레저, 문화·관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체험,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현대인의 시간선택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주도의 노사정(勞社政)위원회는 2000년 10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특위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 기준의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가·휴일제도"를

2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 이내, 주5일 근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는 노사(勞社)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그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가시간의 상승을 대세로 본다면 향후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가시간 확대가 특정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아직 충분히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지 못한 관계로 주로 시간 소비형 여가수요 - 여행, 스포츠 및 체험활동 그리고 동호회 활동 등 - 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저소득층은 여가시간을 활용한 부업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변화하게 될 근로자의 여가시간활용 패턴을 현재와 비교하여 주5일 근무제가 유발하게 될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예측·분석된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변화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주5일 근무는 우선 주말이 1.5일에서 2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부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이 아닌 주5일 근무는 여가활동의 다양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와 여가활동의 다양화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가구의 생활 패턴 및 여가활용 변화를 현재와 비교하여¹⁾ '주5일 근무제 이후 생활패턴 및 여

가활동'을 파악하고 이들 활동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게 될 것이다. 환경영향분석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과 상·하수도 수급문제, 국토이용패턴의 변화,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그리고 폐기물 발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계량화 시도는 특정 환경분야나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환경영향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환경영향을 연구하는데 셀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설정 역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측·계량화된 주5일 근무의 환경영향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의 계량화는 주5일 근무제가 수반하게 될 산업·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자료나 예측이 무의미한 이유로 대상을 '여가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1) 이 과정에서는 최근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제 2 장 현황분석

제 1 절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1. 도입 논의 경과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주도로 '98년 2월 노사정(勞社政)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0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조정' 하는 것이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하고 둘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수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임금수준으로 부기)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1년 7월부터 노사정(勞社政)위원회는 상임위원, 노동차관, 노총사무총장, 경총부회장, 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운용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특위 공익위원안(2001.9)』을 토대로 『전체 공익위원안』을 마련하고 2001년 9월까지 노(勞)·사(社) 의견조율을 시도하였다.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관급 및 장관급 협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접근하기도 하였으나 노·사 모두 소속 구성원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2002년 2월) 후부터 2001년 12월 노사정위가 제시한 『합의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 사이에 계속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거둬들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일종의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단체에 제시하였다. 조정안의 내용은 먼저 주(週)휴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차휴가일수는 15-25일 사이에서 결정하되 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을 연 3-4개월 내에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먼저 금융, 보험, 공공부문이 연내 먼저 시행하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기타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기간 2년, 20인 이상 사업장은 3년을 두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노동시간 비교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현재 4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上廻)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 주요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구분	1983	1990	1995	1998	1999	2000
호주	1,852	1,869	1,876	1,860	1,864	1,837
캐나다	1,783	1,790	1,780			
체코			2,064	2,075	2,088	2,000
핀란드	1,787	1,728	1,730	1,727		
프랑스	1,712	1,657	1,614	1,604		1,532
독일(구 서독)	1,705	1,593	1,534	1,531	1,535	
이탈리아	1,699	1,674	1,635	1,648	1,873	
일본	2,095	2,031	1,884	1,842		
한국	2,734	2,514	2,484	2,390	2,497	2,447
멕시코			1,833	1,878	1,921	
뉴질랜드		1,820	1,843	1,825	1,842	
노르웨이	1,485	1,432	1,414	1,399	1,395	
스페인	1,912	1,824	1,814	1,833	1,827	
스웨덴	1,518	1,546	1,613	1,628	1,634	
스위스			1,636	1,579		
영국	1,713	1,767	1,740	1,731	1,720	1,711
미국	1,882	1,943	1,952	1,955	1,976	1,821

자료 : 노동부(2002. 7)와 김승택(2000)

다만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요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의 추이를 비교한 <표 2-1>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초과 근무시간이 많고 휴가와 휴일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는 주휴일 52일과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20일 등으로 모두 합치면 91~101일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週)휴일이 104일, 공휴일이 10일, 연차휴가가 보통 4주 등으로 총 휴가 일수가 142일이다. 일본은 주휴일 104일, 공휴일 15일, 연차휴가 10~20일 등으로 총 휴가일수는 129~139일이며, 이밖에 영국이 132~137일, 독일이 140일, 프랑스가 145일 등이다 (<표 2-2> 참조).

<표 2-2> 주요 국가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주휴일	52	104	104	104	104	104	52
공휴일	18	10	15	8	12	11	22
월차휴가	12	-	-	-	-	-	-
연차휴가	10~20	연차휴가 (보통4주)	10~20	연차휴가 (20~25)	24	30	7~30
계	92~102	142	129~139	132~137	140	145	81~104
실제사용 일수	78.8 ('98)	126 ('95)	132 ('97)	136 ('96)	144 ('96)	139 ('92)	

자료: 노동부 (2000). ()은 조사 기준 년도임

따라서 우리나라 휴일·휴가 일수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 30~40여 일이 적지만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주휴일 52일이 늘어나 우리나라 휴가·휴일 일수

는 선진국 수준을 넘는 모두 143~153일이 된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휴가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전체 휴가·휴일 일수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차휴가 12일을 없애고 연차휴가 상한선 (15-20일)을 둘 경우 우리나라 휴가·휴일 일수는 130~140일 가량으로 줄어 국제적인 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부여받은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여받은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 있다. 실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일 휴가일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78.8일인데 비해 미국이 126일, 일본이 132일, 영국이 136일, 독일이 144일, 프랑스가 139일 등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쉬는 날이 늘어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총 휴일,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며, 연 월차 휴가를 조정하고 법정 공휴일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제 2 절 여가활용 현황

현재 통계청은 ‘사회통계조사’에서 여가활동을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감상·관람, TV시청, PC관련, 휴식·수면, 가사잡일, 창작적 취미, 승부놀이, 스포츠, 여행, 가족과의 시간, 가사잡일과 사고관련 활동에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여가(餘暇)라 함은 ‘여유가 있는 시간’으로 ‘일’과 ‘개인유지’ 등 생존(生存) 혹은 생활(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의 범위를 단순히 통계청의 분류방식을 따르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참여 및 봉사활동’과 학생이 아닌 ‘직장인의 자기계발활동’과 봉사 및 동호회 활동 역시 여가활동으로 분류하는 ‘광의(廣義)의 여가활동’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1. 협의(狹義)의 여가활용 행태(통계청 분류)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99. 7. 16~ 2000. 7. 15) 문화와 여가부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으로 TV시청과 휴식·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방법으로 TV시청이 62.7%, 휴식·수면이 50.7%, 가사잡일 33.5% 등의 순으로 보여 수동적이고 가정중심의 여가활동이 많은 반면 창작적 취미 3.2%, 승부놀이 3.4%, 스포츠 8.0% 등 능동적이고 집을 떠나 즐기는 여가활동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근로조건을 감안할 때 “휴식”에 중점을 둔 여가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1.5일의 짧은 휴식시간은 교통혼잡이 잦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여행과 같이 집을 떠나야 가능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표 2-3> 한국인의 주말 휴일 여가활동방법(중복응답)

순위	주말 휴일 여가활동방법	비율(%)
1	TV 시청	62.7
2	휴식, 수면	50.7
3	가사, 잡일	33.5
4	사교관련	32.3
5	가족과 함께	22.8
6	여행	15.1
7	PC 관련	12.5
8	감상, 관람	10.1
9	스포츠	8.0
10	승부놀이	3.4
11	창작적 취미	3.2
12	기타	3.7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2. 광의의 여가활동

넓은 의미로 ‘여가활동’을 해석할 경우 사회단체에 참여나 자원봉사활동 역시 여가를 활용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먼저 1999년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의 23.1%로 나타났다. 주요활동 단체는 사교단체 및 종교, 스포츠/레저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친목·사교 및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인다.

<표 2-4> 사회단체 참여도

사회단체 참여인구 : 전체 조사대상의 23.1%							
사교단체	종교단체	스포츠/레저	사회봉사	학술	이익	정치	기타
54.1	19	15.7	7.5	0.9	1.6	0.7	0.6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13%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수용된 시설에 대한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관기관 지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자원봉사활동 비율

자원봉사 참여인구 : 전체 조사대상의 13.0%					
환경보전	공공행사	자녀교육	복지시설	재해지역돕기	기타(헌혈 등)
40.1	8.1	12.3	34.2	8.7	11.8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7.2% 수준이며 주요 참여방법으로는 직장연수, TV/Radio, 학원수강, 교양강좌 및 직장연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의 경우 보다 높은 학습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학습참여자	직장연수	교양강좌	직업훈련	TV/Radio	기타
전국	17.2	7.8	3.6	2.1	3.7	0.4
동부	18	8.6	4.2	1.1	4.2	0.4
읍면부	14.3	4.8	1.3	5.7	2	0.4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3. 종합

우리국민의 여가생활은 연령층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의 책임을 지는 세대의 경우 일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7> 10세 이상의 요일별 시간활용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개인유지	42.36%	42.29%	42.57%	42.85%	46.25%	46.11%
일	21.11%	12.57%	18.82%	11.04%	11.11%	7.29%
학습	7.71%	6.81%	5.07%	4.24%	2.15%	1.81%
가사	1.74%	13.89%	2.08%	14.38%	2.85%	14.17%
참여 및 봉사활동	0.28%	0.21%	0.21%	0.21%	0.21%	0.14%
교제 및 여가활동	19.03%	17.78%	22.99%	20.49%	29.72%	24.17%
이동	7.29%	5.83%	7.92%	6.11%	7.29%	5.69%
기타	0.49%	0.63%	0.35%	0.69%	0.42%	0.6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이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역시 자주 하고 여가시간 역시 직장과 일에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민의 전반적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가정에서의 휴식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자료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나라민은 휴일에도 일이 계속되어 휴일에 여가활동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여가활동도 수면, TV 시청 등 휴식에 집중되고 교육이나 훈련, 참여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시간활용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요일 관광, 스포츠활동 등의 교제 및 여가활동은 일부 확인되고 있다.

<표 2-8>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

%	여자	남자	전체	고용주	자영 업자	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만족	30.9	32.2	31.6	31.1	32.9	30.2	31.0	25.8	25.8
불만족	69.1	67.8	68.4	68.9	67.1	69.8	69.0	74.2	74.2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37.2	34.5	35.9	24.0	35.5	32.5	28.6	42.9	52.6
시간부족	16.8	18.4	15.2	31.4	19.7	26.2	25.3	19.1	10.7
교통혼잡	3.6	4.2	3.1	6.0	2.8	1.9	5.9	3.6	2.4
여가시설부족	2.2	2.3	2.0	1.2	1.5	1.2	2.3	1.9	1.4
여가정보부족	1.3	1.2	1.4	1.3	0.6	0.7	1.7	1.0	0.6
취미 없음	3.8	3.4	4.2	2.9	3.3	3.4	3.6	3.6	3.8
건강/체력부족	4.5	3.5	5.4	1.7	3.5	3.6	1.4	1.9	2.5
기타	0.4	0.2	0.5	0.3	0.2	0.2	0.2	0.1	0.3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우리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68.4%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의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 35.9%, 시간부족 16.8% 등을 들었다(<표 2-8> 참조).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불만족 이유 중 하나인 시간부족은 해결할 수 있으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변화에 따라 여가활동의 불만족 및 여가활동의 규모를 결정하는 영향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52.5%)의 가구에서 여가를 줄이더라도 소득을 원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여가시간을 희망하는 가구는 전체의 21.1%에 불과하여 주5일 근무가 여가활동의 증가를 유발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²⁾.

2)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제 3 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해외 사례

1. 근로시간 단축 도입 배경

주요 국가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미국 (1938년), 프랑스 (1946년) 등 서구권에서 1930년대 이후 “실업감소”라는 실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일본은 경제동물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기가 되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부문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개방정책의 후유증 무마를 위해 95년부터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였고 97년 5월부터 민간부문에 적용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00년 2월부터 프랑스가 주당 39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줄이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모든 사례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법에 규정했을 뿐 ‘주5일 근무’를 명문화한 곳은 없다. 주5일 근무가 곧 토요일휴무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정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 관행처럼 굳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2. 근로시간 단축 해외사례

가. 미국

미국은 1930년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주6일) 근무가 정착되었었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1938년 주 40시간 (주5일) 근로제 도입을 추진했다. 공정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민간기업에는 40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

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이 제도가 약 30년이 지난 1974년 (연방공무원)~1985년 (지방공무원)에야 도입됐다. 학교 수업의 경우 현재 전체 공립 초·중·고교가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경제 전반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역시 이를 전제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 및 노동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5일 근무 역시 개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1946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97년 6월 사회당 집권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도모했다. 그 결과 98년 6월 주39시간에서 35시간(주 4.5일 근무제)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근로자 20명 미만 기업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령의 시행 이후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휴가패턴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여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프랑스가 '주(週) 35시간 노동' 실시는 현대사회에 대한 급격한 생활혁명 실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빈 시간의 일손을 메우기 위해 신규고용을 늘이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기업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사회보장 부담금 감축 등의 혜택을 줬다. 근로자들은 기존의 주5일 근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간 1,600시간 이하만 일해도 기본 봉급에 변화가 없이 더 늘어난 휴가 시간을 즐기게 됐다. 현재, 프랑스 전체 민간기업 근로자의 54%인 880만 명이 주당 35시간 노동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프랑스 근로자들은 원래 연간 최소 5주일의 유급(有給)휴가를 즐겨왔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무일을 따로 쓰기보다는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장기 휴가로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순번을 정한 뒤 금·토·일 혹은 토·일·월로 긴 주말 연휴를 즐기는 곳도 많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35시간 노동제는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우선, 1주일의 노동 리듬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직장 내부 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고, 월·수·금요일은 단축 근무로 보낸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관광·레저 산업에 곧바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열차와 항공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여행패턴이 변화하여 소위 '오지(奧地) 여행' 등 특수목적의 관광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 행태에서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도심의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에 손님이 늘어난 반면, 과거에 주말 고객을 상대하던 도시 외곽의 대형 할인매장들은 일찌감치 쇼핑을 끝낸 고객들의 주말 장거리 여행 때문에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화소비도 증가시켰다. 프랑스 노동자의 약 70%에 대한 주 35시간 노동이 실시된 2000년 이후 프랑스인의 46%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책과 음반을 구입했는데, 프랑스의 대표적 대형 서점·음반 유통기업인 프낙(fnac)은 2000년 이후 25%의 매출액 신장을 기록했다. 집안 수리 용품의 수요 역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약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국 영화관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전년도에 비해 관객이 24% 증가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Xavier Timbeau의 말처럼 "주35시간 노동제는 프랑스적 예외성"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 일본

일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87년 전후로 이루어졌다. 계기는 국제 사회로부터 쏟아진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비판이었다. 일본은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 간에 걸쳐 부문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완전 정착은 99년 4월 1일에야 달성됐다. 일본은 공무원에게 92년 5월부터 이 제도를 먼저 적용했다. 학교 수업은 92년 9월 월 1회 토요일 휴업제, 95년 4월 격주 토요일 휴업제, 2002년 4월 1일 완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시차를 두고 진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서구의 고용창출보다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라. 중국

중국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효과는 소비의 증가, 즉 '휴가경제'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중국이 주5일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것은 1995년 5월 1일부터다. 이는 '노동법'의 시행 시점과 일치한다. 중국은 앞서 94년 초부터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자 같은 해 7월 노동법에서 이를 명문화, 이듬해(95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노동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했고, '직공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서 '주5일 근무제'에 관한 강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실시한 것이다.

중국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명분은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거리'를 쪼개 좀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실업자 대책'의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초기, 중국인들은 넘쳐나는 주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중국 대도시의 보통 시민들은 주로 백화점이나 거리의 상가를 쏘다니

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중반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이 열매를 맺으면서 도시 백화점과 상가에는 경공업제품과 전자제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도심 곳곳에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대거 들어섰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보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주말이면 백화점에 몰려 도시의 큰 백화점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큰 매장을 차지하기 시작한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자전거였기 때문에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90년대 중반 중국에서 자동차는 정부 기관이나 국유기업 고위 간부들이나 타는 것이었고, 보통 시민들은 시내버스나 자전거로 이동했다. 대학이나 주요 기관의 건물 옆에는 지붕을 씌운 자전거 보관소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지 7년째가 되는 요즘, 중국의 주말문화는 급변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중국에도 여행과 야외 레크리에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에서 야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는 심한 정체가 발생한다.

국내외 여행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항공여행과 함께 동남아·한국·일본 여행도 중산층 이상의 중국인들에게 이미 보편화됐다.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급화되고 있는 백화점에도 주말이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침체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춘절이나 노동절 휴가를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개방 정책의 후유증 무마와 내수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본주의 도입 후 임금이 늘어나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생활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쉬는 시간 확대’로 해소한 것이다.

중국이 97년 전면 실시한 주5일 근무제는 비록 사회체제가 한국과 다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이 성과를 거

두면서 93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13%에 이를 만큼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 생활수준은 이에 상응할 만큼 개선되지는 않았다.

근로자 소득수준은 높아졌지만 내수시장이 동반 성장하지 않았다. 국유기업 개혁에 따라 실업자가 늘면서 사회불안 움직임마저 나타났다. 중국은 결국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와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주5일 근무에 들어간 이후 중국에는 '휴일경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3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관광소비가 늘어나 철도 교통 항공 요식업 분야에 100여 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중국의 국내 관광객은 94년 5억 2,400만 명(이하 연인원 기준)에서 99년 7억 1,900만 명, 2000년 7억 4,4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작년 중국의 3차 산업 총생산액은 3조 4,153억 위안(元)으로 93년에 비해 2배 반 이상 늘어났다.

마. 기타

독일은 실업감소를 지향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일부 기업이 경기하락에 따른 대량해고를 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Volkswagen)이 1995년 이후 주35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IG Metal 역시 같은 이유로 현재 주32시간 근로를 노조와의 합의아래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한때 12%까지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었다. 먼저 노동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1982년 주38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었고 이후 주36시간이 정착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9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6%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실업률의 감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단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순히 실업률 감소라는 경제적 효과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시간이용패턴과 생활의 질적 변화를 동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이런 일련의 변화가 계량화를 통해 알려진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 환경적 영향을 조사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근로시간단축의 논의과정에서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추정한 몇몇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제 3 장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가져올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는 우리국민들의 여유시간 활용방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의 변화는 실제로 지난 7월부터 금융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주5일 근무 이후의 여가활동패턴의 변화에 대한 「여가·문화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앞서 언급된 것처럼 “여가”의 정의에 따른 약간의 이견(異見)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국민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먼저 ‘자본소비형 여가활동’보다는 ‘시간소비형 여가활동’, 즉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혹은 레저·스포츠활동을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기계발, 학원·어학 등의 개개인의 미래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문화학회」의 조사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기존에 일반적인 여가활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일부 활동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주5일 근무 실시 이후 우리국민의 여가활동 변화에 대해 국내·외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측하게 될 것이다.

제 1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

주5일 근무가 우리사회에 점차적으로 일반화되면서 기업과 정부 및 학계에서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우리의 시간활용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이란 시각에서 볼 때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여가활동을 위한 과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다시 말해 TV 시청과 PC게임은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영향’을 살핀다면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

측하는데 있으므로 여가활동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좀 더 넓은 분류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주5일 근무제는 기존의 여가활동 방법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TV시청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이 상당부분 적극적인 여가활동, 즉 관광 혹은 사회참여 등의 모습으로 변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분석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밖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및 문화활동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중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여행), 사회참여(자원봉사), 자기계발활동 등을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게 될 것이다.

<표 3-1> 최근 한달간 주말 여가활동

여가시간 활용	주5일제 실시집단	비 실시집단
가족과 함께 지내기	41.6%	29.5%
문화활동	7.8%	18.5%
미디어활동	18.6%	30.2%
레저활동	19.0%	13.6%
스포츠활동	21.0%	13.6%
여행	21.0%	18.5%
집에서 휴식/TV보기	32.2%	44.5%
가사일 하기	8.2%	5.8%
사회봉사활동	0.8%	0.6%
수면	5.2%	13.0%
자기개발	10.0%	2.3%
학원/어학	3.4%	0.3%
친구 만남	3.2%	1.9%
기타	2.2%	0.9%
없음	0.4%	10.0%

자료 : 여가·문화 학회(2002.8),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1.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관광(여행)

가. 주5일 근무제 이후 국내관광수요 예측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관광부문에 가장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이미 여가활동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의 개념을 벗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3-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관광수요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상관없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주5일 근무 법제화는 이와 같은 추세를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광수요 변화

(단위 : 천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03-07)
주5일 미도입시 자연증대 추세 (1)	관광 총량	347,130	370,387	397,703	432,403	452,618	470,723	489,552	509,134	400,048
	숙박 관광	180,507	192,601	206,806	224,849	235,361	244,776	254,567	264,749	208,025
	당일 관광	166,622	177,786	190,897	207,553	217,256	225,947	234,985	244,384	192,023
주5일 도입시 순증대 효과 (2)	순증대 효과	14,463	15,432	16,571	18,016	18,859	19,613	20,398	21,213	6,668
	숙박 관광	6,942	7,407	7,954	8,648	9,052	9,414	9,791	10,182	8,001
	당일 관광	7,521	8,025	8,616	9,368	9,806	10,199	10,607	11,031	8,667
주5일 근무제도입시 관광총량 (1) +(2)		361,593	385,820	414,274	450,420	471,477	490,336	509,950	530,348	416,717

자료 : 본 연구 추정 결과

한편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의 관광수요는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명승지 및 경관감상을 위한 관광이 체험 및 스포츠·레저활동을 위한 관광 등 보다 적극적 형태의 관광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3> ‘주 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여행형태 비교

(단위: %)

구 분	평소 여행형태	‘주 5일 근무제’ 도입 할 경우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	40.7 (21.2)	31.9(16.5)
문화유적·사적지 방문	22.2 (11.6)	27.3(14.1)
농어촌체험관광	4.2 (2.2)	8.3(4.3)
전시시설 및 예술관람	16.7 (8.7)	15.3(7.9)
레저·스포츠관광	20.8 (10.8)	42.6(22.0)
위락·휴양 관광	25.9 (13.5)	37.0(19.1)
도시·산업관광	1.4 (0.7)	3.7(1.9)
쇼핑관광	22.7 (11.8)	12.0(6.2)
유흥/오락	28.2 (14.7)	10.6(5.5)
기 타	9.3 (4.8)	4.6(2.4)
합 계	(100)	(100)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2001. 12),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여행변화 전망’ 설문조사

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자기계발(학습)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유허간의 증가는 미래설계를 위한 자기계발, 즉 학습 또는 연수 등에 일정부분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71.0%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자기계발 희망분야는 컴퓨터

관련, 어학관련, 문화 및 교양, 사회봉사관련 등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시간적 제약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희망하는 교육분야

받고 싶은 교육이 있음 : 전체 조사대상의 71.0%								
	일반기술	컴퓨터 관련	어학	전통문화 전통기능	문화 및 교양	사회봉사	정규교육	기타
전국	10.5	62.9	30.5	8.6	25.6	11.5	5.8	0.7
동부	10.5	68.1	34.2	9	27.6	12.2	6.2	0.7
읍면부	10.6	43.1	16.2	7.1	17.9	8.9	4.2	0.9

자료: 2000년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3.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단순히 휴식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의 단순 확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5일 근무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일주일 중 2일간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활용은 전적으로 그들 개인의 몫이 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간이 주로 여행과 같은 소비지향적인 활동과 학습 등의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그 밖의 활동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기타활동으로는 같은 생각이나 이상을 나눌 수 있는 친목의 공간, 즉 사회공동체 활동이 있다.

사회공동체 활동이란 단순히 친교를 다지는 동호회 활동부터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및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과 자원봉사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참여도가 현재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의 자아성취의 일환으로 그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 35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주 35시간 노동’ 실시 이후의 사회활동 참여

분류	감소(A)	변화 없음	증가(B)	기타
여자	4.2%	74.6%	20.1%	1.1%
남자	6.8%	66.3%	25.5%	1.2%
전체	6.2%	68.4%	24.4%	1.3%

자료 : 프랑스 노동부(2002), 《Principaux résultats de l'enquête RTT et modes de vie》

<표 3-6>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분류	직접적 효과 있음	변화 없음
여자	34.9%	65.1%
남자	43.4%	56.3%
전체	41.5%	58.5%

자료 : 프랑스 노동부(2002), 《Principaux résultats de l'enquête RTT et modes de vie》

제 2 절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영향

현재 정부가 정한 주5일 근무제의 실행시기는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3-7> 참조). 이와 같은 정부의 실행(안)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우리국민의 여가활동을 예측하고 이들 여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표 3-7>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 (2002. 9.5)

시행시기	적용대상
2003. 7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
2004. 7	300인 이상
2005. 7	50인 이상
2006. 7	30인 이상
	30인 미만은 사업장 (대통령으로 정함)
2007. 이후	구체적인 명시 없음

자료 : 주5일 근무 노동부 입법안(2002. 9. 6), 노동부

1. 여가인구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가. 관광행태의 변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향후 관광수요를 크게 늘리는 효과와 함께 기존의 관광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총 관광수요는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관광행태에 있어서도 관람, 방문 및 유흥 등의 소극적인 관광보다는 활동적인 관광, 즉 농촌체험 및 레포츠 등에 보다 많은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관광수요 예측과 여행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행행태별 관광수요를 산출한 결과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8> 2003년 이후 여행형태별 관광수요 (1)

(단위 : 천명)

관광 형태	2003		2004		2005		2006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자연명승	73,592	59,663	78,522	63,660	84,313	68,355	91,670	74,319
문화유적	40,267	50,985	42,965	54,401	46,134	58,413	50,159	63,509
농촌체험	7,637	15,549	8,149	16,590	8,749	17,814	9,513	19,368
전시예술	30,200	28,566	32,224	30,480	34,600	32,728	37,619	35,583
레포츠	37,490	79,551	40,002	84,881	42,952	91,140	46,700	99,092
위락휴양	46,862	69,064	50,002	73,692	53,690	79,127	58,374	86,030
도시산업	2,430	6,870	2,593	7,331	2,784	7,871	3,027	8,558
쇼핑	40,961	22,419	43,706	23,921	46,929	25,685	51,024	27,926
유홍오락	51,028	19,888	54,447	21,220	58,462	22,785	63,563	24,773
기 타	16,662	9,040	17,779	9,646	19,090	10,357	20,755	11,261
합 계	347,130	361,594	370,388	385,821	397,704	414,275	432,404	450,420

자료 : 본 연구 추정 결과

<표 3-9> 2003년 이후 여행형태별 관광수요 (2)

(단위 : 천명)

관광 형태	2007		2008		2009		2010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자연명승(A)	95,955	77,794	99,793	80,906	103,785	84,142	107,936	87,507
문화유적(B)	52,504	66,478	54,604	69,137	56,788	71,903	59,060	74,779
농촌체험	9,958	20,274	10,356	21,084	10,770	21,928	11,201	22,805
전시예술(D)	39,378	37,247	40,953	38,737	42,591	40,286	44,295	41,898
레포츠(E)	48,883	103,725	50,838	107,874	52,872	112,189	54,986	116,677
위락휴양(F)	61,103	90,052	63,548	93,654	66,090	97,400	68,733	101,296
도시산업(G)	3,168	8,958	3,295	9,316	3,427	9,689	3,564	10,077
쇼 핑(H)	53,409	29,232	55,545	30,401	57,767	31,617	60,078	32,882
유홍오락(I)	66,535	25,931	69,196	26,969	71,964	28,047	74,843	29,169
기 타(J)	21,726	11,787	22,595	12,258	23,499	12,749	24,438	13,259
합 계	452,618	471,478	470,723	490,337	489,552	509,950	509,134	530,348

자료 : 본 연구 추정 결과

나. 여가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발생량 변화

<표 3-8>과 <표 3-9>에서 도출된 여행행태별 관광수요만을 가지고 관광객의 예상이동거리를 추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목적 교통량을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http://www.ktdb.go.kr/>)의 여가목적 통행량을 기준으로 분석·예측 할 것이다.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http://www.ktdb.go.kr/>)에 따르면 1999년 여가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표 3-10>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여가활동 목적 교통량

(단위 : 통행/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6,471	2,910	17,984	2,739	5,049	912	36,065
부산광역시	5,206	0	2,843	135	457	1,013	10,883	20,537
대구광역시	3,333	3,770	0	199	115	824	849	9,090
인천광역시	5,056	148	40	0	198	436	38	5,916
광주광역시	2,965	388	305	206	0	146	94	4,104
대전광역시	4,316	679	463	414	187	0	96	6,155
울산광역시	952	6,132	634	51	19	249	0	8,036
경기도	100,366	1,218	960	27,204	855	2,617	178	133,399
강원도	17,039	1,547	972	727	105	771	408	21,569
충청북도	9,121	351	925	383	103	3,988	172	15,044
충청남도	13,581	601	540	1,192	264	8,484	61	24,722
전라북도	8,726	1,345	521	725	2,806	4,007	204	18,333
전라남도	8,850	3,127	526	346	12,675	858	409	26,792
경상북도	9,750	6,651	24,562	650	176	1,938	6,053	49,781
경상남도	3,725	24,500	3,721	187	451	737	3,098	36,417
제주도	933	324	50	0	213	0	26	1,546
합계	193,918	57,252	39,972	50,403	21,363	31,115	23,480	417,504

자료: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 (<http://www.ktdb.go.kr/>)

여가목적 통행량은 관광, 레저 등 모든 여가활동 목적의 통행을 집계한 것으로 추세는 관광수요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5일제에 따른 국내관광수요의 예측에서는 주5일제의 직접적 효과가 지난 9월의 정부안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관광수요를 예측하였다.

<표 3-11>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 증가율 전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증가율(%): (1)	4.0	6.0	6.7	7.4	8.7	4.7	4.0	4.0	4.0
자연증가율(%): (2)	-	4.0	4.0	4.0	4.0	4.0	4.0	4.0	4.0
주5일근무제로 인한 순수 증가율(%): (1)-(2)	-	2.0	2.7	3.4	4.7	0.7	-	-	-

자료: 이강욱(2002), <부록 1> 참조

<표 3-11>에 따르면 주5일제의 시행에 따른 순수효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의 효과는 자연증가율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의 순증가율을 토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통발생량을 계산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1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목적 교통량 증가분

(단위 : 천인-km)

	2003	2004	2005	2006	2007
주5일 시행	54,101	56,644	59,703	63,703	65,423
미시행	53,061	54,122	55,205	56,309	57,435
순 교통발생량/일	1,040	2,522	4,498	7,394	7,988
연간	379,750	920,513	1,641,877	2,698,917	2,915,657

자료 : 국가 교통데이터의 내용을 토대로 예측된 연구결과

김준순(2002) 연구보고서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은 육상교통수단 간 단위 환경비용을 구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의 경우는 대기오염, 온실효과 및 소음 등에 의한 비용이 29.729원/인-km이고 철도의 경우는 10.5원/인-km로 추정하였다³⁾. 주5일 근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에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명시된 정부의 미래 교통분담률 계획⁴⁾과 일치시켜 환경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항공교통의 비용은 프랑스의 건설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는 철도교통과 항공교통의 환경비용의 비율을 통해 제시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프랑스에서의 교통수단간 환경비교는 다음의 <표 3-13>과 같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교통관련 환경비용에서 이와 같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표 3-13> 교통수단간 환경비용 비교(프랑스 사례)

(단위 : centimes/인-km)

		대기오염	온실효과
승용차 지역간		3,8	1,1
승용차 시내구간		8	2,4
철도	고속철도(전기)	0,12	-
	디젤	0,8	
항공		1,6	2
버스		1,1	-

자료: 프랑스 건설교통부(<http://www.equipement.gouv.fr/>)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환경비용은 다음과 같다.

3) 김준순(2002),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건설교통부(1999),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표 3-14> 주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비용(1)

(단위 : 백만원)

환경비용(단위비용)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도로(29.729)	9,540	22,249	39,807	64,779	69,280	205,654
철도(10.5)	439	1,372	2,444	4,351	5,091	13,698
항공(21)	343	831	1,506	2,504	2,734	7,919
계	10,321	24,452	43,758	71,634	77,105	227,270

자료 : 연구 결과

즉 2003년부터 2007년의 5년 간 교통부분의 환경비용 약 2,272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이후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표 3-13>과 <표 3-14>를 비교해 본다면 고속철도의 교통분담은 인정하였지만 환경비용은 현행 디젤 차량을 전제로 계산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계획대로 고속철도가 철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가 된다는 가정 하에 프랑스의 사례를 다시 한번 고속철도 분야에 적용하면⁵⁾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목적 교통량 증가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5> 주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비용(2)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도로비용(29.729)	9,540	22,249	39,807	64,779	69,280	205,654
철도(10.5)	219	686	1,222	2,176	2,545	6,849
고속철도(1.575)	33	103	183	326	382	1,027
항공(21)	343	831	1,506	2,504	2,734	7,919
계	10,135	23,869	42,719	69,785	74,941	221,449

자료 : 연구 결과

5) 프랑스의 디젤 0.8, 고속전철 0.12의 비율을 적용하면 고속전철의 환경비용은 1.575원/인-km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교통 추가발생에 따른 환경비용은 주5일 근무가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여가대신 업무를 위해 이용한 교통의 환경비용을 감해야만 순수한 의미의 '주5일 근무에 따른 교통환경비용'으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권역의 연간 토요일의 일상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량과 그 환경비용을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표 3-16> 토요일 통근에 의한 연간 환경비용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도권	2,416	2,997	3,731	4,664	5,851
5대 광역권	903	1,114	1,379	1,713	2,136
기타 지역	632	780	965	1,199	1,495
합 계	3,952	4,891	6,076	7,577	9,482

- 주 1. 수단간 환경비용은 김준순(2002),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인용
 2. 수도권의 교통량은 KOPI의 “광역교통망계획”의 수요 인용
 3. 5대 광역권의 교통량은 KTDB의 1999년 5대 광역권 교통량을 토대로 추정하였음

<표 3-15>에서 도출한 여가목적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환경비용에서 <표 3-16>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감한 순수한 의미의 주5일 근무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7>는 교통수단간 배분이 교통분담률 혹은 이용자 비율에 따라 환경비용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교통이용 패턴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주2일의 휴식기간이 일반화된 이후 교통수단 선택이나 차량이용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실질적인 환경비용과 격차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의 여유로 인한 교통량의 분산효과 혹은 조금 느린 수단의 선택 등이 그것이다.

<표 3-17>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가 유발한 순수 환경비용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순수 환경비용	6,183	18,978	36,643	62,208	65,459	189,471

자료 : 연구 결과

결국 2003년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약 2,000억 원 규모의 환경비용이 관광 등의 여가수요를 통한 교통량 증가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활동 선택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이후 장거리 위주의 관광 혹은 기타 여가활동이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면 이에 따라 환경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교통환경비용은 상당부분 과소 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단위 환경비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 관광 등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승용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의 환경비용은 프랑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버스에 비해 약 4~5배 가량 높은데 본 보고서의 환경비용 산출과정에서는 버스와 승용차의 비용을 평균한 단위 환경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상당히 낮게 예측되고 있다.

다.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인구의 증가는 교통관련 환경비용 이외에도 관광지의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2003년 이후 관광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처리될 지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1998년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객과 오물처리량 그리고 오물처리비용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통계에 근거해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물발생 및 오물처리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8> 국립공원 입장객 1인당 오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추이

	1998	1999	2000	2001	4년 평균
오물처리량/입장객수(kg)	0.5248	0.4749	0.4152	0.3381	0.4383
청소비/입장객수(원)	147	104	137	174	140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npa.or.kr/>)

현재의 추세는 90년대 중반 국립공원 내의 취사를 금지한 이후 꾸준히 일인당 오물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오물처리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년 간의 부족한 자료를 통한 회귀분석을 통해 미래 비용과 오물발생량을 추정하지 않고 관찰 기간의 평균비용 및 평균 오물발생량을 근거로 향후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와 연관하여 폐기물 관련 비용을 계산하였다.

<표 3-19>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오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 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관광객 순수 증가(천)	6,821	9,763	13,118	19,471	3,153	52,326
연간 발생량(천톤)	4,481	6,414	8,618	12,792	2,071	34,378
처리비용(백만원)	1,436	2,056	2,762	4,100	664	11,018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된 연구 결과

관광수요의 증가가 향후 오물과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비교적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증가폭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교통환경비용 산출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구조변화, 예를 들면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일회용 상품들이 크게 각광받게 된다면 이들 상품소비에 따른 폐기물 발생은 급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비율을 크게 높일 경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광 등의 여가활동으로 외식문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식 횟수의 증가가 폐기물 분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역시 변화를 짐작할 수 있지만 결과를 계량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외에 이동과정 중에도 음식 등과 관련된 오물발생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정량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국민의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의 변화는 주5일 근무제 이외의 요소들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 기타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라.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활용 변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먼저 주말 도시 인구들의 상당부분 관광지 등 소위 “농·어촌” 등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교통부분과 마찬가지로 관광수요의 증가는 도시내 상수도의 이용을 줄이고 폐수처리를 줄이는 대신 지방에서의 상수도 수요와 폐수발생을 유발하게 된다. 인당 일일 상수도 이용량(120 liters)을 감안할 경우 상수도의 지방에서의 수요는 연간 다음의 <표 3-20>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3-20>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활용 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관광객 순수 증가(천)	6,821	9,763	13,118	19,471	3,153	52,326
수자원 타지역 사용량 (백만 리터)	819	1,172	1,574	2,337	378	6,279

자료 :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자료(2001)를 토대로 추정된 연구 결과

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지역의 수요만을 감안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수요증가로 인해 2007년에는 약 90여 개의 일일정수 용량 500톤 이하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비용은 약 1,863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갑작스런 관광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31여 개의 처리장 건설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64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일상 수요뿐만 아니라 침두시점의 수요까지도 충족할만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새로이 건설되어야 하는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시설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수자원 분야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앞서 한국관광연구원의 주5일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관광행태가 농·어촌 체험관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이나 농·어촌 및 산골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부족 및 운영효율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환경자원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고, 자정능력과 순환능력을 보유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생명부양체계이다. 또한, 자연은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한 상태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연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보전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소득 및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근교에는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자연경관을 이용하려는 관광인원의 증가는 환경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관리로 파괴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은 주로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외지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관광개발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광지에는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숙박 및 상업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서게 되고 이로 인한 환경자원의 훼손은 커져만 간다. 이를 막기 위해 1984년부터 정부는 생태 및 녹색관광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21> 생태·녹색관광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휴양단지		민박마을	
	지구수	정부 지원액	지구수	정부 지원액
1998 이전	8	14,600	235	21,073
1999	-	-	17	2,601
2000	1	2,000	14	1,543
계	9	16,600	266	25,217

자료 : 강신겸(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피해를 수치화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특히 관광객의 성품과 습관에 따라 아주 다른 환경피해를 추정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다만 관광객의 증가가 녹지훼손 등 식물성장에 영향을 주고 소음 등으로 인해 동물들의 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피해정도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자연환경자원

을 나누려는 공동체 의식에 따라 조금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자기계발 및 학습에 따른 환경영향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일반적으로는 여가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습 등의 활동이 미래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순수한 여가활동으로 볼 근거는 매우 미약해진다. 하지만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이나 직업훈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평소 일과 상관없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학습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여가활동 방법(<표 2-3> 참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의 또 다른 조사결과(<표 3-1>)에서 보면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집단에서의 자기계발 및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대단히 명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자기계발 및 학습 수요를 상당히 높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와 같은 전망은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어학·컴퓨터 교육 등의 개인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에 조사대상의 약 40%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술·음악 등 관심분야에 대한 학습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프랑스 주35 시간 노동 이후의 학습활동 증감 (응답자 : 158명)

분류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기타
여자	1.4%	53.4%	43.5%	1.7%
남자	3.4%	54.8%	38.4%	3.3%
전체	3.2%	54.4%	39.9%	3.2%

자료 : 프랑스 노동부(2002), 《Principaux résultats de l'enquête RTT et modes de vie》

기존에 주로 여가시간이 휴식과 TV시청에서 학습 등의 자기계발로 바뀌게 될 경우 교통수요의 발생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교통수요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은 자택과 근거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원격학습 등의 영향으로 현재보다 특별한 교통, 폐기물, 수질, 국토환경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3. 사회참여의 변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참여활동의 정도는 그리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비율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인구의 약 27%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주의의 지나친 발전에 대한 거부감 또는 개인만의 생활에서 오는 공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남과 사회를 함께 도우면서 공동체의 가치있는 일원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최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참여의 기폭제(조사대상의 약 40%가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표 3-6><표 3-7> 참조))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23> 최근 교육, 홍보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지원 내역	2001	2002
환경보전범국민운동본부	46	46
쓰레기해결 시민협회 지원사업	581	581
환경교육강화	1,233	1,271
청소년현장체험환경교육	1,150	1,150
민간자연환경단체 지원	152	152
합 계	3,162	3,200

자료 : 환경부(2002),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특히 우리나라 사회참여활동 중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구의 40% 이상이 환경보존과 관련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문제의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에 연간 약 3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시민을 중심으로 환경동호회 혹은 자연보호 단체 등이 만들어진다면 일부 예산지원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들 단체를 통한 환경문제의 공유 및 홍보와 교육 및 체험 확대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기타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주5일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말여가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시간활용에 대한 개념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주말농장의 활성화 및 주말시간의 충분한 재충전 기회는 현재까지 7, 8월에 행해지던 휴가 집중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휴가철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휴가집중화가 가져오는 환경영향에 대한 계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으나 자원환경이 단기간의 집중적인 이용에 따라 자동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상당부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종합적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 이후 우리국민의 여가활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광수요의 급증은 교통, 폐기물, 수질 분야 및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는 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장 중요한 부정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5일 근무 이후의 자기계발 및 학습활동의 증가는 정성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의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이 보다 확대된다면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 반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우리국민들의 사회참여를 크게 높인다면 지역의 환경보존 활동의 증가로 인해 모든 계층의 환경체험 및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이들의 참여의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보다 값진 체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 3-24> 주5일 근무제의 시행 이후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분야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중립적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관광수요 증가	대기/소음					○
	폐기물				○	
	수자원			○		
	자연환경					○
학습활동 증가	대기/소음			○		
	폐기물			○		
	수자원			○		
	자연환경			○		
사회 참여도 증가	대기/소음			○		
	폐기물	○				
	수자원		○			
	자연환경	○				
휴가분산	대기/소음	○				
	폐기물			○		
	수자원		○			
	자연환경		○			

또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여름휴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여름휴가가 무한정 분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분산가능한 여름휴가는 매년 거듭되던 휴가집중에 따른 환경자원의 과부하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장 주5일 근무의 환경영향에 따른 정책제언

제 1 절 환경친화적 여가활동 유도를 위한 정책제언

1. 교통부분

관광수요의 급증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환경비용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가기회의 확대에 따라 레저용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유차량의 수요증가와 맞물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4년 개통될 고속전철이 우리나라 교통분담의 한 축을 맡아줄 경우 일반철도에 비해 7배 환경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교통부분의 환경비용을 상당히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관광객이 철도 혹은 도로 이용 여부에 따라 환경비용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표 4-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선택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환경비용은 170억 까지 추가될 수 있다.

<표 4-1> 도로이용자 비율 증가시 추가적 환경비용

(단위 :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증가	89,968	915,950	1,512,518	2,950,307	3,664,280	9,133,024
5% 증가	449,842	1,788,284	3,068,459	5,507,963	6,427,331	17,241,880

자료 : 교통분담률 변화를 통해 추정된 연구 결과

반대로 여가인구의 교통수단 선택이 철도로 전이될 경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교통환경비용이 100억 까지 감소할 수 있다(<표 4-2> 참조).

<표 4-2> 철도 이용자 증가 시 환경비용 절감

(단위 :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증가	(89,968)	(218,083)	(388,985)	(639,414)	(690,763)	(2,027,214)
5% 증가	(449,842)	(1,090,417)	(1,944,926)	(3,197,070)	(3,453,814)	(10,136,070)

자료 : 교통분담률 변화를 통해 추정된 연구 결과

하지만 철도의 환경성이 우수한 반면 통행의 완결성이나 접근성에서는 승용차에 크게 뒤지는 것이 대부분의 관광객이 도로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해도 바로 주요 역을 연계하는 연계교통체계가 좀 더 명확한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통체증을 기피하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분야에서도 승용차가 여가활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유 및 휘발유 승용차 중심의 이용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임대차량을 저공해 차량 중심으로 저가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의 관광은 주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현재 철도의 요금체계로는 충분히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격 유인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가족 단위 혹은 연인 단위의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해 승용차 이용객을 철도로 유인하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철도교통의 공급부족이 해결되면 소위 수익극대화의 일환으로 YMS(Yield Management System)의 도입과 함께 주말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가격할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철화는 향후 철도의 환경친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다. 전철화는 단순히 기존의 경유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관차의 환경

비용을 낮추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속도와 안전성이 탁월한 고속철도와의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교통체계를 승용차 중심에서 간선철도체계로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국의 주요도시가 모두 고속철도로 연결하게 된다면 속도 면에서 승용차에 비해 1.5~2배까지 빠른 고속전철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그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폐기물 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수준 역시 폐기물 발생량 감소라는 점에서 보면 점차 선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잦은 여가활동은 일회용 식품 및 용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제품들이 재활용 혹은 폐기에 따른 위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의 인구만을 3,500만으로 볼 때 전(全)국민의 70% 이상이 대도시권의 인구임을 감안하고 이들 인구의 이동이 주로 농·어·산촌 등 산과 바다로 이어질 것이므로 읍·면·동 등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확장과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3. 수질부분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수도의 수요가 관광인구의 증가에 따라 상당부분 지방화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및 관리능력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될 것이다.

또한 관광수요의 증가는 강과 호수의 낚시 등 레저 및 스포츠활동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광객들의 교통이용 확대에 따른 사고위험 역시 높아지므로 상수원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4. 자연환경자원 분야

환경자원을 보존하면서 국민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파괴와 변형 및 지역문화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방안으로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이 필요하다.

생태관광(ecotourism)의 개념은 초기에 관광대상에 대해 관광객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인 자연환경지역이나 특이한 야생생물과 생물자원을 가진 자연생태계를 관찰, 학습, 체험하는 여행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문화 존중'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보전 수단'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생태관광을 정착시켜서 지역사회에는 자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주인 입장에서 자연과 관광을 관리하게 하고, 관광객에게는 잘 보전된 자연을 통해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생태관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적정 수준의 관광객 수를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처럼 단순히 규정에 의한 제한을 넘어 지역별·특성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관광지 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환경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광과 환경이 서로 상치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농촌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잘 보전된 지역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녹색관광 활성화가 요구된다. 녹색관광은 개별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및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녹색관광은 도시민의 여가요구 충족 외에도, 농외소득 증대, 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 2 절 결 론 : 주5일 근무에 따른 환경정책 방향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여가 욕구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해외 여가활동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국내 자연과 농·어촌 등 도시 밖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 환경청의 업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크게 활용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우리국민의 여가활동이 대부분 농·어·산촌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면 지방환경청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부분의 역할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좀 더 안정화되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밑받침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관리조직과 행정력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주5일 근무제 시행은 도시보다는 농촌,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지방화 및 관리주체의 능력제고가 요망된다.

수요의 확대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제 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여가수요, 특히 환경자원에 대한 여가수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향후 환경자원의 고갈을 막고 환경자원 보호의 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생태 및 녹색관광 지원사업은 충분한 사업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부재 및 프로그램의 미개발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주5일 근무의 확산에 따라 신세계그룹 등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난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민간의 프로그램개발이나 마케팅 능력은 인정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 지원하의 많은 사업들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지원만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제도를 동반한 환경친화적 관광(혹은 그린투어)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기고장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각각 다양한 주말농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방 자치단체들의 주말농장 계획을 환경친화적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 변화가 얼마만큼의 환경비용을 발생시킬 것인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및 방법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들의 높은 사회참여 등은 환경부문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교통수단의 선택 역시 환경비용의 증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선택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사회참여를 보다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경력에 인정하는 등의 정책으로 승화한다면 보다 활발한 국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수단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교통계획에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환경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면 보다 환경친화적인 국가교통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해 우리국민들은 보다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즉 환경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 환경자원의 가치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증가하는 수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다른 곳(해외 관광)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나라 환경자원의 가치는 소위 “기회비용”까지도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올바르게 보존된 환경자원의 이용자와 이용빈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자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효율성은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여부를 떠나 우리국민의 여가시간 확대는 현실화 단계에 있다. 여가활동의 올바른 활용은 생산현장에서의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가활동변화에 따라 환경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주5일 근무 혹은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주5일 근무는 우리사회의 주요 변화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런 주요 사회변화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환경자원 이용이 과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협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아직 우리에게겐 경험이 없는 제도이며 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는 향후과제로서 남기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어왔고, 있고 또 있을 우리의 여가활동과 환경을 연계해 시사점을 도출한 것을 본 연구의 성과로 밀하고 싶다.

<참고문헌>

1. 한국관광연구원(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2. 한국관광연구원(2000), 《휴가분산 시행 활성화 방안》
3. 한국노동연구원(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한국노동연구원(2002),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5.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제 근무와 여가에 대한 인식》
6. LG경제연구원(2000),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7. LG경제연구원(2000),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8. LG경제연구원(2002), 《주5일 시대의 레저 마케팅》
9. 여가·문화학회(2002), 《주5일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10. 현대경제연구원(2002),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육상교통의 환경성 비교분석》
12. 통계청(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13. 프랑스 노동부(2002), 《Principaux résultats de l'enquête RTT et modes de vie》
14. 프랑스 기획처(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 les enseignements de l'observati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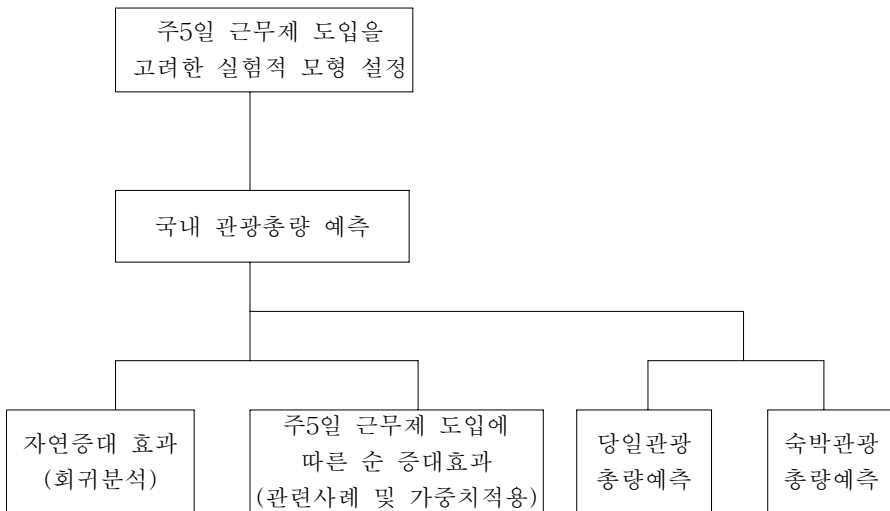
<부록 1> 국내관광총량예측

가. 분석체계 및 예측의 전제조건

1) 분석체계

국내관광총량 예측은 기존의 국내관광총량 자료를 활용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가정한 실험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총량의 증감효과를 분석한다 (자연증대효과 및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순 증대효과 포함). 또한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관광이동총량의 순 증감분을 추정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경제여건, 주 5일 근무제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 증대효과 추정하기로 한다.

<그림 부록-1> 관광총량 분석체계도



자연증대효과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국내관광총량의 자

연 증감율을 추정한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순 증대효과는 총 증대효과에서 자연증대효과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당일 관광총량 예측 및 숙박관광예측은 국내관광총량 대비 당일관광비율 및 숙박관광비율의 과거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표 부록 1-1> 주 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 (2002. 9.5)

시행시기	적용대상
2003. 7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
2004.7	300인 이상
2005.7	50인 이상
2006.7	30인 이상
	30인 미만은 사업장 (대통령으로 정함)
2007. 이후	구체적인 명시 없음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관광총량 추정기간은 최근의 정부안 (2002.9.5)을 토대로 하여 5년 간 (2003 - 2007년)의 국내관광총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한다(<표 부록-1>참조).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년도별 도입단계를 고려하여 2003 - 2007년까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관광총량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2008년 이후는 자연증가율 추세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전제조건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고려한 실험적인 모형설정을 통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 시에 예상되는 관광총량 (자연증대효과 및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순 증대효과 포함)은 회귀모형 (1)과 관련되며 약 33.5%의 국내관광총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 (2)는 관광총량의 자연증가율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증감의 규모를 나타내며, 모형(3)은 국내관광총량의 자연증대효과를 나타내는 시간(T)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1) \ln(\text{관광총량}) = 19.2 + 0.335\text{Dummy}, \quad (R^2=0.40) \\ (13.2)$$

$$(2) \ln(\text{관광총량}) = 18.91 + 0.037T + 0.13 \text{ Dummy}, \quad (R^2=0.87) \\ (8.6) \quad (2.4)$$

$$(3) \ln(\text{관광총량}) = 19.2 + 0.042T, \quad (R^2=0.82) \\ (8.7)$$

[단, Dummy변수에서 1= 주5일 근무제 도입시; 0은 주5일 미도입시; ()안은 t값을 나타냄]

모형(1)의 경우 결정계수가 40%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2), (3)의 결정계수 값이 80%이상이고 시간(T)에 대하여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예측에 적절한 모형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모형은 제한적인 분석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계는 있으나 보정과정을 거쳐 국내관광 총량 예측에 적용하기로 한다.

○ 회귀분석 결과 (1)에 의하면 국내관광총량은 향후 5년 간 걸쳐 관광총량의 변화는 33.5%로 자연증가율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의한 국내관광총량의 순증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년도별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년도별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해 년도별 증가율 배분이 필요하다.

○ 회귀분석 (2), (3)에 의하면 연간 자연 증가율은 3.7 % - 4.3% 범위로 추정되어 국내관광총량의 자연증가율을 4%로 전제로 한다. 따라서 5년 간(2003- 2007년)의 관광총량 자연 증가율은 20% ($4\%/연간 \times 5년$)로 추정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5년 간(2003- 20007년)의 관광 총량 순 증가율은 회귀식 (1)에 의하면 13.5%로 추정된다 (33.5% - 20%). 회귀식(2)에 의하면 약 13.0%로 추정됨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총량의 순 증가율은 5년 간 13-13.5%의 범위에 있으므로 연간 평균 순 증가율은 2.7% ($13.5\% \div 5년$)로 추정할 수 있다.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순 증가율 규모를 년도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최근의 정부안(2002.9.5)을 토대로 하여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의 자료 및 일본의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5년 간 (2003 - 2007년)의 순 증가율을 배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후 초기 6년 동안은 (버블경제 전성기: 1987년- 1992년) 은 약15%의 국내관광수요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 (버블 경제이후 1993년 이후)에는 약 10%의 신장세를 보인 사례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 경제는 불황으로 예상보다 일본국내 관광총량의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GDP 성장률과 관광총량 성장률간의 탄력도를 적용한 결과, GDP 1% 증가 시 관광총량 성장률은 0.8%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 4.5%의 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사례조사 등을 참조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국내관광총량 순 증가율에 대한 년도별 가중치를 <표 부록 I-2>와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표 부록 1-2> 5년간 순 증대효과에 대한 년도별 성장률 배분 가중치

구 분	고용규모(명)	비율	년도별 순증가율 적용 가중치	년 도
1-19명	7,632,804	56.1%	5.0%	2007년
20-49명	1,806,044	13.3%	35.0%	2006년
50-299명	2,528,554	18.6%	25.0%	2005년
300-999명	930,511	6.8%	20.0%	2004년
1000명이상	706,361	5.2%	15.0%	2003년
총 계	13,604,274	100.0%	100.0%	

자료: 통계청(2001),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주5일 근무제 도입시에 관광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 경험율, 1인당 참가회수, 참가 일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광총량 관련 변수 분석모형설정에서 시간(T)의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요소로 가정하여 회귀분석에 포함된 것으로 전제로 한다. 전반적으로 관광총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증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부록 I-3> 참고).

<표 부록 I-3> 관광총량 관련 변수

구 분		관광총량 관련 항목 평균(1993-2001)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변화 전망 (2003-2007)
당일 관광	경험율(%)	81.1	+
	1인당 참가회수(회)	4.52	+
	관광객(천명)	28,735	+
	당일관광총량(천명) (1)	159,658	+, -
	당일관광총량비율(%)	52.0	+, -
숙박 관광	경험율(%)	66.8	+
	1인당 참가회수(회)	1.46	+
	1인당 참가일수(일)	3.72	+
	관광객(천명)	23,676	+
	숙박관광총량(천명) (2)	141,719	+
	숙박관광총량비율	48.0	+, -
국민관광이동총량 (1)+(2)		301,377	+

3) 국민국내관광총량 변화율 전제

사례조사, 주 5일 근무제 도입 단계 및 회귀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자연 증가율은 연간 4.0%로 전제로 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순수 증가율은 2003년 2.0%, 2004년 2.7%, 2005년 3.4%, 2006년 4.7%, 2007년에는 0.7%의 순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부록 I-4> 참조).

따라서 국내관광 총(總)증가율은 2003년 6.0%, 2005년 7.4%, 2007년에는 4.7%로 전제하고 2008년 이후로는 자연 증가 효과 연간 4.0%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

<표 부록 1-4>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 증가율 전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증가율(%): (1)	4.0	6.0	6.7	7.4	8.7	4.7	4.0	4.0	4.0
자연증가율(%): (2)	-	4.0	4.0	4.0	4.0	4.0	4.0	4.0	4.0
주5일근무제로 인한 순수 증가율(%): (1)-(2)	-	2.0	2.7	3.4	4.7	0.7	-	-	-

나. 국내관광총량 예측결과

현재 당일 숙박 여행의 기존의 여행 추세를 반영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 국내여행수요를 예측해 본 결과, 국내관광총량은 향후 2003년에는 3억6,159천명, 2005년에는 4억1,427만 명, 2007년에는 4억7,1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5년 간(2003 -2007년) 국내관광총량의 순 증대효과는 약 8천334만 명으로 2003-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천667만 명의 국내관광총량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연증대 효과 및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순수효과를 합산한 관광총량은 2003년 3억 6,159만 명, 2005년 4억1427만 명, 2007년에는 4억 7,147만 명으로 추정된다. 2003 -2007년 기간 동안 자연 증가율을 포함한 연평균 성장률은 약 7%로 추정된다.

한편 2008년 이후 주 5일 근무제의 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으로 보고 자연 증가율 4% 수준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할 때, 2010년 국내관광총량은 약 5억3,0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부록 1-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국내관광예측

(단위: 천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03-07)
주5일 미도입시 자연증대 추세 (1)	관광 총량	347,130	370,387	397,703	432,403	452,618	470,723	489,552	509,134	400,048
	숙박 관광	180,507	192,601	206,806	224,849	235,361	244,776	254,567	264,749	208,025
	당일 관광	166,622	177,786	190,897	207,553	217,256	225,947	234,985	244,384	192,023
주5일 도입시 순증대 효과 (2)	순증대 효과	14,463	15,432	16,571	18,016	18,859	19,613	20,398	21,213	6,668
	숙박 관광	6,942	7,407	7,954	8,648	9,052	9,414	9,791	10,182	8,001
	당일 관광	7,521	8,025	8,616	9,368	9,806	10,199	10,607	11,031	8,667
주5일 근무제도입시 관광총량 (1) +(2)		361,593	385,820	414,274	450,420	471,477	490,336	509,950	530,348	416,717

<부록 2> 2003~2007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표 부록 II-1> 2003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단위 : 천인-km/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3,021	935	778	950	837	402	6,923
부산광역시	2,431	0	417	661	142	311	610	4,571
대구광역시	1,071	553	0	69	27	133	99	1,952
인천광역시	219	724	14	0	73	82	18	1,129
광주광역시	1,028	120	72	76	0	28	33	1,358
대전광역시	715	208	75	78	36	0	27	1,139
울산광역시	420	344	74	23	7	70	0	938
경기도	4,995	577	271	1,378	269	350	69	7,909
강원도	1,567	730	315	127	46	223	227	3,236
충청북도	1,214	122	200	60	23	186	56	1,861
충청남도	1,884	226	134	189	75	344	23	2,875
전라북도	2,197	432	124	199	321	392	73	3,738
전라남도	3,440	1,169	113	132	1,027	234	202	6,318
경상북도	2,685	560	1,124	190	59	212	1,046	5,876
경상남도	1,547	1,543	443	81	106	184	375	4,279
합계	25,413	10,329	4,312	4,040	3,161	3,586	3,260	54,101

<표 부록 II-2> 2004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단위 : 천인-km/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3,163	979	815	994	876	421	7,249
부산광역시	2,545	0	436	692	149	325	639	4,785
대구광역시	1,121	579	0	72	29	139	104	2,043
인천광역시	229	758	14	0	77	86	19	1,183
광주광역시	1,076	126	76	79	0	30	35	1,422
대전광역시	749	218	78	82	38	0	28	1,193
울산광역시	439	360	78	25	7	73	0	982
경기도	5,230	604	284	1,442	282	366	72	8,281
강원도	1,641	765	330	133	48	234	237	3,388
충청북도	1,271	128	210	62	24	195	59	1,949
충청남도	1,972	236	141	198	78	360	24	3,010
전라북도	2,300	452	130	208	337	410	76	3,913
전라남도	3,601	1,224	119	138	1,075	245	212	6,615
경상북도	2,811	586	1,177	199	61	222	1,095	6,152
경상남도	1,620	1,615	464	85	111	192	393	4,480
합계	26,607	10,815	4,515	4,230	3,310	3,754	3,413	56,644

<표 부록 II-3> 2005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단위 : 천인-km/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3,334	1,032	859	1,048	924	444	7,640
부산광역시	2,682	0	460	729	157	343	673	5,044
대구광역시	1,182	610	0	76	30	146	110	2,154
인천광역시	241	799	15	0	81	91	20	1,246
광주광역시	1,134	133	80	84	0	31	37	1,499
대전광역시	790	230	82	86	40	0	30	1,257
울산광역시	463	379	82	26	7	77	0	1,035
경기도	5,513	637	299	1,520	297	386	76	8,728
강원도	1,729	806	348	140	51	246	250	3,571
충청북도	1,340	135	221	66	26	205	62	2,054
충청남도	2,079	249	148	209	82	380	25	3,173
전라북도	2,425	476	137	219	355	432	81	4,125
전라남도	3,796	1,290	125	146	1,134	259	223	6,972
경상북도	2,963	618	1,241	210	65	234	1,154	6,484
경상남도	1,707	1,703	489	89	117	203	414	4,722
합계	28,044	11,399	4,759	4,459	3,488	3,957	3,597	59,703

<표 부록 II-4> 2006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단위 : 천인-km/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3,557	1,101	917	1,118	986	473	8,152
부산광역시	2,862	0	491	778	167	366	718	5,382
대구광역시	1,261	651	0	81	32	156	117	2,298
인천광역시	258	852	16	0	86	97	21	1,330
광주광역시	1,210	142	85	89	0	33	39	1,599
대전광역시	842	245	88	92	43	0	32	1,341
울산광역시	494	405	87	28	8	82	0	1,104
경기도	5,882	680	319	1,622	317	412	81	9,313
강원도	1,845	860	371	150	54	263	267	3,810
충청북도	1,429	144	236	70	27	219	66	2,192
충청남도	2,218	266	158	223	88	405	27	3,385
전라북도	2,587	508	146	234	379	461	86	4,401
전라남도	4,050	1,376	133	156	1,210	276	238	7,440
경상북도	3,161	659	1,324	224	69	250	1,232	6,919
경상남도	1,822	1,817	521	95	125	216	442	5,038
합계	29,923	12,162	5,077	4,757	3,722	4,222	3,838	63,703

<표 부록 II-5> 2007년의 여가목적 통행량 예측

(단위 : 천인-km/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서울특별시	0	3,653	1,131	941	1,148	1,012	486	8,372
부산광역시	2,939	0	504	799	172	375	738	5,527
대구광역시	1,295	668	0	83	33	160	120	2,360
인천광역시	265	875	17	0	88	99	21	1,366
광주광역시	1,243	146	88	92	0	34	40	1,643
대전광역시	865	252	90	94	44	0	32	1,377
울산광역시	507	416	90	28	8	84	0	1,134
경기도	6,041	698	328	1,666	325	423	83	9,564
강원도	1,895	883	381	154	56	270	274	3,913
충청북도	1,468	148	242	72	28	225	68	2,251
충청남도	2,278	273	163	229	90	416	28	3,477
전라북도	2,657	522	150	240	389	474	88	4,520
전라남도	4,160	1,414	137	160	1,242	284	245	7,640
경상북도	3,247	677	1,359	230	71	257	1,265	7,106
경상남도	1,871	1,866	536	98	128	222	454	5,174
합계	30,731	12,491	5,215	4,886	3,822	4,336	3,942	65,423

<부록 3>최근 주5일 근무 관련 연구조사 주요내용

1. 여가·문화 학회

<표 부록 III-1> 지난 한달간 주말 여가활동

(단위 : %)

응답항목(복수응답)	실시집단(N=500)	비 실시집단(N=308)
가족과 함께 지내기	41.6	29.5
문화활동	7.8	18.5
미디어활동	18.6	30.2
레저활동	19.0	13.6
스포츠활동	21.0	13.6
여행	21.0	18.5
집에서 휴식/ TV보기	32.2	44.5
가사일 하기	8.2	5.8
사회봉사활동	0.8	0.6
잠자기	5.2	13.0
자기개발	10.0	2.3
학원/어학	3.4	0.3
친구만남	3.2	1.9
기타	2.2	0.9
없다	0.4	1.0

자료 : 여가·문화 학회(2002.8),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표 부록 III-2>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

여가활동을 못한 이유	주5일제 실시집단	비 실시집단
비용 부족	6.8%	6.5%
함께 즐길 사람이 없음	3.2%	0.6%
여가 콘텐츠 부족	10.8%	4.2%
갈 곳이 마땅치 않음	3.6%	4.9%
무엇을 해야할 지 모름	23.2%	13.6%
시간 부족	7.8%	45.1%
아이들이 학교에 감	3.0%	2.3%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4.0%	1.9%
기타	7.6%	9.6%
특별한 불만이 없음	29.2%	11.0%
모름/무응답	0.8%	0.0%

자료 : 여가·문화 학회(2002.8),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표 부록 III-3> 주5일 근무제 정착 이후 희망 여가활동

여가시간 활용	주5일제 실시집단	비 실시집단
가족과 함께 지내기	22.8%	21.1%
문화활동	8.2%	8.8%
미디어활동	16.4%	16.9%
레저활동	25.6%	27.6%
스포츠활동	29.2%	30.2%
여행	36.6%	62.0%
집에서 휴식/TV보기	7.8%	14.0%
가사일 하기	2.8%	1.3%
사회봉사활동	1.8%	0.3%
수면	1.6%	4.2%
자기개발	29.8%	7.1%
학원/어학	11.4%	1.3%
기타	2.0%	1.6%

자료 : 여가·문화 학회(2002.8),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

2. 주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삼성경제연구원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여가를 얻는 것 보다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52.5%)의 가계가 여가를 조금 줄이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하는 가계 비율도 전체 가구의 51.7%로 아직까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부록 III-4> 소득별 소득과 여가에 대한 선호

(단위: %)

소득수준	전체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소득선호	52.5	57.4	58.6	49.0	44.5
지금만족	25.8	22.5	21.0	31.4	28.2
여가선호	21.1	17.1	20.1	19.2	27.3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이후 여가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주2일의 휴일의 시간 소비를 위해, 전체의 47.4%가 가족내 활동이나 여행 등에 집중되어 있어 주2일의 휴일에 대한 여가 패턴이 다양하지 않게 조사되었다.

<표 부록 III-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에 대한 여가활용

가족과 함께	여행	자기계발	휴식	스포츠	문화/관람	기타
47.4%	22.2%	14.9%	6.6%	4.1%	1.7%	3.1%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1.9), 주5일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

정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휴가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의 96.3%가 적절한 여름휴가 기간을 1주일 이하로 응답하였고, 2주 이상의 장기 휴가는 0.3%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에 대해서는 학력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고학력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1주일 이상의 휴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나 여가활동을 하는 가게가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이공원 및 영화 등의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0.4%로 가자 많고, 1번 이하로 하는 가게는 전체의 2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드라이버, 여행 및 등산 등의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4번 이하인 가게가 전체의 44.4%를 차지하였다. 스포츠, 취미, 자기계발 활동 역시 한번도 하지 않는 가게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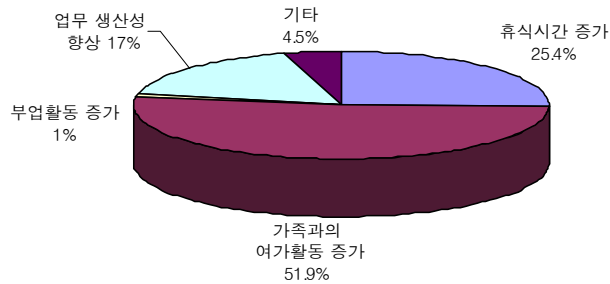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여가 및 문화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레저산업이 다양화, 활성화될 전망이다.

3.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 현대경제연구

원

설문조사결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찬성 46.6%, 반대 53.4%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다소 우세해 새로운 제도 실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찬성의 이유로는 가족과의 여가활동 증가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휴식시간 증가(25.4%), 업무생산성 향상(17.1%), 부업활동 증가(1.0%) 순으로 가족생활과 심신의 리프레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III-1> 주5일 근무제 찬성 이유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토요일 휴무를 주로 가족과의 여가 활동, 레포츠 및 취미활동 등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족과의 여가활동이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일반가계에서 가족생활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레포츠 및 취미생활을 선호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서는 아르바이트, 토요일 휴무 반납 등을 통한 소득 증가를 도모하려는 욕구도 예상외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부록 III-6>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무 활용 방법

	자기개발	스포츠/레저 /취미활동	가족과의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학업	토요일휴무 반납
전체	0.2%	19.8%	57.7%	4.5%	3.1%	13.5%
20대	0.0%	23.1%	69.2%	2.6%	5.1%	0.0%
30대	0.5%	18.6%	62.2%	3.2%	3.2%	10.6%
40대	0.0%	22.2%	55.6%	5.1%	3.0%	13.6%
50대	0.0%	17.3%	53.6%	5.6%	2.6%	18.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2.7),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증가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일반 가계의 70%가 가계소비의 추가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향후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레포츠업,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추가적인 소비 증가에 대한 소득, 성별, 지역, 학력, 직종에 따른 기대의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연령별로 20-30대, 소득수준별로 월 201만원 이상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보였다.

Abstract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in Korea

A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restructured industries in Korea make strong and diversified social needs to policy makers. One of them is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continuously required by work union until IMF crisis in 1997.

The implication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are too large and complicated to well-predict. In this study, for that reason, the focus is the direct and short-term effects of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As a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 for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Korean people will dispose more leisure time and this study interest in the way they consume this time.

In particular, tourism sector will have a great influences by an expansion of leisure time in terms of work-hours reduction. The changes of tourism demand and travel pattern, by introduction of the five day week work,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term of environment. It is because firstly tourists will use transportation and it's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e very high; secondly, tourists are a source of waste in the country; thirdly they can be also polluter of drinking water; and finally their tour habits can destroy scare environmental resources.

Leisure time expansion of Koreans result in increase of transportation use and we estimate the environmental cost of it by 189.5 billion won in 5 years. But at the same time, the waste and water pollution by

increased tourists are not easy to estimate and we can just guess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re quite negative.

After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Koreans desire to pursue their education continuously. And the expansion of free time can have some influences for education demands in Korea. But this change has no real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In contrast with education demands, Koreans' social participation can have real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After KNSO, 40% of voluntary participants for social causes ar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rotection. For this reason, the expansion of free time can increase these voluntarism and the protection of Korean environment will be more effective.

Finally, having more free time throughout the whole year, Koreans will enjoy their journey more frequently. This change makes less congestion in summer vacation, formally big problem in Korea. We cannot exactly estimate the effect in this study but because the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will be less concentrated, the implications in term of environment are positive.

The estimation about future activities of Koreans cannot have solid bases. We know, however, their choices have environmental implications. In order to orient well their choices, we can make some propositions to policy-maker. First, the modal choice is very important for future environmental cost of transportation. Second,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ecological tourism. Third, the district administration becomes an essential administration point. And finally, the policy, faced new social change like as the reduction of legal work time, should consider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can b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집필자 약력

최진석

프랑스 프랑슈-콩페대학교 경제학박사(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E-mail: jinseok@kei.re.kr)